



하늘로 솟구치는 외형의 엄숙함... 꽃과 빛·생태를 활용한 경건함

산 자와 죽은 자의 교감... 건축이 추모와 위로를 헌정하다

서울 추모공원

<건축개요>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68
 용도 :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대지면적 : 36,453㎡
 건축면적 : 6,868.14㎡
 연면적 : 17,932.5㎡
 용적률 : 28.1%
 건폐율 : 18.84%
 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준공 : 2012년
 설계 : 해안건축, 두호건축
 사진 : 박영채

지난해 온 국민은 울었다. 지난해 2월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4월 세월호 침몰, 5월 고양터미널 화재·장성요양원 화재, 10월 관교 환풍구 붕괴, 11월 담양 펜션 화재 등으로 354명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의 생사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 사망자 293명과 실종자 전원은 세월호 희생자이고,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세월호 참사 등으로 유독 어린 학생들이 부모 곁을 떠났다.

즐거워야 하는 실이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다. 뻗뻗한 새 지폐로 내 아들·딸의 세뱃돈이 아닌 노잣돈을 챙겨야 한다. 주인 없이 텅 빈 방을 하염없이 울음으로 채워야 할지도 모른다.

건축은 때로 이별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기도 한다. '서울 추모공원'은 건축 자체만으로 고인(故人)의 명복과 유족의 회복을 빌고 있다.

지붕은 운구 지나듯 시각화
 주변은 생태공간으로 조성
 중앙엔 꽃과 빛 조화시켜
 고인 명복·유족 회복 기원

서울 추모공원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화장장이자 공원시설이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땅에서 하늘로 솟은 듯한 형상이다.

땅에 묻혀 있는 건축물은 중정(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싸고 돌아 하늘을 향하고 있다. 중정을 가운데 놓고 위로 향하는 지붕은 마치 상여길과 같다. 낮은 경사의 언덕은 겹겹이 위를 향하는데, 운구가 지나는데 엄숙하다.

하얗게 내린 눈 위로 잃어버린 이가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직접 상여를 매지 못한 유족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로된다.

이처럼 건축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상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그리고 보는 이는 상상을 통해 각자 원하는 위로를 받는다.

지붕이 운구의 동선이라면, 유가족을 위한 길도 있다. 사색과 추모를 위한 생태공간이다.

건축물 옆으로 펼쳐진 청계산과 산책로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한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자연의 이치인 만큼,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섭리 속에서 이별을 자기합리화하는 것이다.

지붕 없는 마당 한가운데에는 꽃이 한송이 피었고, 위로 뚫린 중정으로는 빛이 내려 비춘다. 계절이 지나도 지지 않는 이 꽃은 고인에게 현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곳으로 내려오는 빛은 어두운 화장장을 밝게 비춘다. 아울러 꽃과 빛의 어우러짐은 경건함을 자아낸다.

이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그 공간을 구성하는 건 건축이다. 예전에는 그 공간이 고인과 함께 살던 집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곳일 확률이 높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추모의 공간도 바뀐 것이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떠난 고인과 남겨진 유가족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의미가 깊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지난해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안타깝게 떠난 이들 모두의 명복을 빈다.

김현기자 hyun@

공사의 첫 단추, 기초공사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세요!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곳이 없습니다
 공사의 첫 단추인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축물의 결과도 부실해집니다
 공사의 첫 단추를 반석기초이앤씨에서 끼우는
 시공사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BS New, Different, Better
반석기초이앤씨(주)

